

자치권·사무 이양 명문화...중앙권한 단계적 이전

통합특별법, 무엇을 담았나

초광역 지방분권 모델 제도적 기반
AI·에너지 지역산업 재편전략 반영
규제 자유화...첨단산업 육성 가속도
해상풍력·영농형태양광 등은 미반영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은 자치권 확대와 중앙권한 이양, 재정 지원, 산업 육성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초광역 지방분권 모델을 제도화했다.

통합 특별법은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 394개 특례로 구성됐으며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위인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농업을 결합한 남부권 성장축을 구축,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했다. 총칙에서는 '광역생활권'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해 법 체계를 간결화했으며 5·1 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대동정신을 계승하도록 명시해 통합의 역사·상징적 의미를 강화했다.

통합특별시의 행정 운영 구조는 분산형 체계로 설계됐다. 통합특별시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정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시·군·구 체계를 유지하면서 광역생활권을 지정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행정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광역생활권 지정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해 권한 주체를 명확히 했다.

핵심은 자치권 확대와 사무 이양 구조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시·군·구로 재배분

하는 이중 분권 체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조직 운영 자율성 등 자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무 이양 시 예산 지원 규모와 인력 재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양 이후 위법·부당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도 조정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되, 관련 권한과 기능을 동시에 넘기도록 해 부분 이관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차단했다. 이관 과정에서는 인력 이동과 재정 지원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통합특별시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

를 명확히 했다. 통합특별시가 기존 광주와 전남이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을 유지하도록 하고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공동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와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독립된 예산을 운영하고 정책 지원 인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인사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는 AI와 에너지 산업을 핵심 축으로 한 지역 산업 재편 전략까지 함께 담겼다.

통합특별시를 AI·에너지·문화수도로 육성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설정했다.

중앙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와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AI 산업은 기본계획과 지원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돼 국가 정책과 연계된 추진이 가능하도

록 했고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전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산업 전반에는 규제 자유화 특례가 적용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통합특별시를 규제 완화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으며 통합특별시는 자체 규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마다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화와 구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광주의 역사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을 명시했다.

다만, 전남도가 건의했던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전용허가 등의 일부 특례는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한 중앙부처 협의나 개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은진 기자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광주·전남 행정통합 구상 공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지난달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 출판기념회가 정치권 관계자와 지역인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정청대 민주당 대표, 박찬대·강득구·황명선·박선원 의원 등 8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거나 축하 영상을 보냈다. 특히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김용 부원장, 조정식 정무특보가 직접 축하 영상을 보냈다. 주최 측은 방명록을 토대로 이날 행사 방문 인원을 1만명으로 추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최근 지역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구상을 시·도민과 직접 공유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방향을 책에 담았다.

신정훈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40년 숙원인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진행하고 그 철학을 담은 이번 책을 출간하게 돼 기쁘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이개호, '독립운동가 AI조롱 엄벌'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일 "3·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의 의미를 훼손하고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악용해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1절을 앞두고 틱톡 등 SNS상에서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는 듯한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의

외모를 조롱하고 반대로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등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확산하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 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찰 내사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 조롱하는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을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악의적 역사 왜곡이자 범죄"라며 "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매년 반복되는 국경일 및 독립운동가 폄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주철현 "국힘, 허위 의혹 정치공세 중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2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제기한 여수 '성동힐링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이자 여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성동힐링센터 사업은 자신의 여수 시장 재임 시절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

로, 정원외 성동구청장 소유 농지와 힐링센터 부지는 생활권 자체가 다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도로상 거리만 약 20km, 직선 거리도 11km 이상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이동해도 2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면 지역"이라며 "이를 '인근'이라 표현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수 지리조차 확인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가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성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